

 인재위원회 2026.5.6.(수)	보 도 자 료 담당 : 인재위원회 연락처: (02)6788-6256
---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최고위원 · 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 발탁인재 발표

- 현장 경험과 IT 전문성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성장 동력 확보 기대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정청래 당대표)는 5월 6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임문영 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발탁인재(2호·3호)로 발표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전주 상산고등학교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현장 밀착형 법률가’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고향 전북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줄곧 시민들 곁을 지켜왔다. 특히 6년간 김제시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지역 행정 실무를 체득했고, 전주MBC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지역 현안을 공론화하는 등 지역사회와 깊이 호흡해 왔다. 민주당은 박 최고위원의 풍부한 현장 경험이 전북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평당원에서 최고위원으로 성장한 그의 이력이 당원주권정당의 소통 역량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광주 사레지오고등학교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하이텔과 나우누리 운영 및 인터넷 첫 상용화 서비스를 주도한 ‘IT·미디어 전문가’다.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경기도 정보화정책관, 미래성장정책관 등을 지내며 데이터 기반 행정을 이끌었고, 최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출범 3개월 만에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완성하는 등 국가 AI 비전 실천에 앞장서 왔다. 민주당은 임 부위원장의 전문성과 행정 경험이 AI 시대 국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호남 지역의 과학기술 기반 도약을 이끄는 탄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인재영입식에서 박지원 최고위원은 “평당원으로서 지도부에 입성하며 배운 당원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지지의 무게를 깊이 새기겠다”며, “중앙과 지역, 정부 정책과 현장, 선배 세대와 후속 세대를 잇는 든든한 허리이자 전북의 큰아들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임문영 부위원장은 “지방이 주도하는 AI산업부흥 시대를 만들겠다”며, “저를 키운 무등산, 광주로 돌아가 AI시대의 가장 앞선 도시, 에너지 전환으로 가장 앞선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AI관련 입법으로 “대한민국 AI 3대 강국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청래 인재위원장은 박지원 최고위원을 “‘당원과 당을 잇는 가교’로서 지역과 중앙, 당원과 지도부, 현장과 여의도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북 토박이로서 “현장을 꿰뚫는 통찰력과 이를 현실로 만드는 유능함을 두루 갖춘 인물”로, “군산·김제·부안의 도약을 위한 최고의 ‘필승 카드’”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문영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으로 발탁된 AI 최고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을 국회와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고 기대 밝혔다.

이번 인재영입식에는 정청래 인재위원장(당대표)을 비롯해 조승래 사무총장, 김영진 인재위원회 부위원장, 박홍배 간사,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강준현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각 분야의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순차적으로 영입하여 정당의 정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끝.

<붙임 1> 박지원 프로필

<붙임 2> 박지원 인재 소개

<붙임 3> 박지원 발표문

<붙임 4> 임문영 프로필

<붙임 5> 임문영 인재 소개

<붙임 6> 임문영 발표문

□ 일반사항

- 1987년 전북 익산 출생(38세)
- 전주 북초등학교 졸업(2000)
- 전주 기린중학교 졸업(2003)
- 전주 상산고등학교 졸업(2006, 23회)
-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2010, 06학번)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 주요 경력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41기)
- 현) 법무법인 다지원 대표변호사
- 김제시청, 김제시의회, 김제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한체육회 등 다수 기관 자문 및 소송 수행
- 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현) 사회대개혁위원회 부위원장
- 현) 전주시체육회장
- 전) 전라북도바둑협회장
- 전)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

전북에서 태어나, 전북에서 살아온 전북의 아들

박지원은 전북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대학 4년과 사법연수원 2년을 제외하면, 삶의 대부분을 전북에서 보냈습니다. 그에게 전북은 단순한 출생지나 주소지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자, 가족과 이웃이 있는 곳이고, 첫 직업적 도전을 시작한 곳이며, 지금까지 삶의 뿌리를 내려온 터전입니다.

그는 전북을 “잘 아는 사람”을 넘어 “전북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역의 자부심과 가능성도,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의 절박함도, 새만금과 농생명 산업의 기대도, 지역 현안 앞에서 느끼는 답답함도 몸으로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중앙에서 경력을 쌓은 뒤 뒤늦게 지역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전북에서 일하고, 시민들과 부딪히고, 지역사회 속에서 신뢰를 쌓아온 사람입니다.

전북이 키운 사람으로서, 이제는 전북을 더 크게 키우는 일에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보태겠다는 것이 박지원의 다짐입니다.

중앙이 아니라 지역을 선택한 변호사

박지원은 20대의 젊은 나이에 고향 전북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더 큰 시장과 더 빠른 성공을 찾아 중앙으로 향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지역에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고, 현장에서 부딪히며 배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변호사로서 그가 마주한 사건들은 단순한 법률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생계, 농민의 억울함, 행정과 시민 사이의 갈등, 가족과 재산을 둘러싼 분쟁, 지역사회 안에서 해결되어야 할 생활의 문제들이었습니다. 법률가에게 필요한 것은 조항을 아는 능력만이 아니라, 사람의 사정을 듣고, 억울함의 핵심을 짚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힘이라는 것을 그는 지역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특히 김제시청 고문변호사로 6년간 활동하며 지역 행정의 작동 방식과 지방정부가 마주하는 실제 고민을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정책이 책상 위의 계획으

로 끝나지 않고 주민의 삶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행정과 주민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득했습니다.

박지원에게 법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고 공동체의 갈등을 풀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이후 그가 정치의 역할을 “잘 듣고, 잘 조정하고, 끝내 해결하는 일”로 이해하게 만든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방송, 봉사, 체육으로 전북의 현장을 만나다

박지원의 지역 활동은 법률가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전주MBC 시사 프로그램 〈이슈옥타곤〉 진행자로 활동하며 전북의 현안을 시민의 언어로 풀어내고, 지역 의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역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제를 다루며 그는 전북이 가진 가능성과 한계를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봉사단체 활동은 그에게 이웃의 삶을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국제로타리3670지구 서전주로타리클럽 회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곳곳의 필요를 확인했고, 봉사가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는 책임의 방식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도 그는 현장을 지켰습니다. 전라북도바둑협회장, 전주시체육회장으로 활동하며 선수와 동호인, 지도자, 체육 행정 관계자들과 호흡했습니다. 체육은 건강과 여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활력, 세대 간 소통, 청소년의 성장, 시민의 자부심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부안군청 바둑 실업팀 창단 등 지역 체육 기반을 넓히는 일에도 힘을 보태며, 현장의 땀과 제도의 뒷받침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법률, 방송, 봉사, 체육. 서로 달라 보이는 이력들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박지원은 늘 전북의 사람들 곁에서 듣고, 말하고, 연결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평당원에서 최고위원까지, 당원주권정당의 힘으로 성장하다

박지원의 정치 참여는 위에서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아래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었습니다. 그는 지역에서 평범한 시민이자 평범한 당원으로 지내던 중,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시간을 마주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며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며 당원으로서의 책임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선캠프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하며 정치의 현장을 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당과 후보를 지키는 방패가 되었고, 시민의 목소리를 제도와 정치의 언어로 옮기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원들의 선택으로 평당원 최고위원에 선출되었습니다. 중앙정치의 문턱이 높다고 느끼던 평범한 당원이 당원들의 힘으로 지도부의 일원이 된 과정은, 그 자체로 당원주권정당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박지원은 이 경험을 통해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치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밀어 올리는 힘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며 그는 전북 예산, 지역 현안, 당원 권리, 청년 문제, 사회대개혁 과제에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당이 마련해 준 기회로 지도부의 일원으로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 그 기회를 다시 지역과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것이 그의 정치적 책무입니다.

전북 정치의 큰아들, 든든한 허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북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새만금, 농생명산업, 에너지, 관광, 청년 일자리, 지방소멸 대응까지 전북이 풀어야 할 과제는 무겁고도 절박합니다. 동시에 전북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으로 도약할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지원은 전북 정치에도 새로운 허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경험 있는 선배들의 지혜를 존중하면서도, 다음 세대의 절박함과 속도를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역정치가 과거의 관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중앙정치와 지역 현장을 잇고, 당의 힘과 정부의 정책 역량을 전북 발전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세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입니다.

그가 말하는 “전북의 큰아들”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위로는 부모님을

잘 모시고, 아래로는 동생들을 챙기는 큰아들처럼, 선배 세대와 청년 세대 사이에서 책임을 나누고, 당과 지역 사이에서 역할을 맡겠다는 다짐입니다.

전북과 당원이 키운 사람.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아온 사람. 당원들의 힘으로 성장한 사람. 박지원은 이제 전북을 더 크게 키우고, 당원이 주인 되는 민주당의 길을 더 단단하게 여는 일에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말보다 현장으로, 구호보다 결과로,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증명하겠다는 것이 박지원의 약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과 8개월 전에 이 자리에 처음 서서, 갓 선출된 평당원 최고위원으로서 대표님과 지도부로부터 따뜻하게 환대받은 기억이 엇그제처럼 생생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당원이었던 제가 당에서 새로 만들어 주신 제도를 통해 지도부에 들어오고, 당무를 경험하고, 중앙당 돌아가는 일을 배울 수 있었던 것만 해도 이미 감사하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거기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까지 주셨으니, 당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하나 고민을 해보았는데, 일단 지역의 우리 당 후보님들과 힘을 합쳐서 원팀으로 바닥을 훑고 뛰어서, 전북에서부터 승리의 기운을 일으켜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전북은 제가 나고 자란 곳입니다. 지역에 대해 제가 갖고 있는 연고와 애정, 책임감에 대해서는 제 입으로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오늘은 지난 8개월간 당에서 활동하며 느낀 소회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마음가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원주권의 상징으로 지도부에 들어왔으니, 중요한 사안마다 당원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자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고백하건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생각들이 다 다르고, 이해관계나 정파에 따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인1표제를 위한 당규 개정 작업,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가깝게는 검찰개혁 법안 수정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당원들의 여러 의견을 들으며 느끼고 배운

점이 많았습니다. 주된 관심사와 이해관계가 달려있어 크게 소리를 내는 소수의 구성원들에게는 정확한 사실에 입각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경청하는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또 크게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침묵하면서도 묵묵히 지켜보면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많은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그 뜻을 무겁게 받들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초심을 유지하며 중앙과 지역을 잇고, 정부의 정책과 지역의 현장을 잇고, 선배 세대의 경험과 후속 세대의 미래를 잇는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손인데, 부모님 잘 모시고 동생들 챙기는 마음으로 큰아들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반사항

- 1966년 광주 출생(60세)
- 광주 양동초등학교 졸업
- 광주 승일중학교 졸업
- 광주 사레지오고등학교 졸업(23회)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85학번)
- 연세대 언론홍보과 대학원 졸업(석사)
- 호서대 기술경영전문 대학원 졸업(박사)



□ 주요 경력

- 이재명정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초대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
-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
- 경기도 정보화정책관, 미래성장정책관
- 성남시 정책보좌관
- 국회사무처 국회ON뉴스 편집장
- (주)MBC(현 아이엠비씨) 미디어센터장
- (주)나우콤(현SOOP) 창업멤버, 운영자, 인터넷포털캠프 팀장
- (주)한국PC통신(KTH) 편집자, 운영자(SYSOP)

광주에서 자란 광주의 아들

임문영은 광주가 고향입니다. 서구 월산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광주에서 다녔습니다. 친구들과 무등산에 올라가던 것을 좋아하고 광주천변에서 자전거로 통학하던 광주의 기억이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1980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친구와 함께 금남로에서 보았던 계엄군과 시민들의 항쟁은 평생동안 가슴에 남아 민주주의 가치를 각인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을 나락에서 건져낸 광주에 대한 자부심은 누구보다 큼니다. 하지만 낙후된 광주와 차별받던 호남에 대한 현실에 안타까움이 여전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성장동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기술이 문명사를 바꾸는 있는 지금이야말로 광주전남을 새로운 방향전환과 함께 미래발전의 기회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가 아닌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

대학에서 교내신문사인 연세춘추사 기자, 편집국장으로 활동하면서 민주화투쟁을 알리는데 노력했습니다. 이한열군의 죽음을 겪었고 망월동까지 장례식을 따라가며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앨빈 토플러의 권력이동, 제3의물결 등 저서를 접하면서 정치보다는 IT기술이 세상을 더 바꿀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갖고 컴퓨터를 배우게 됩니다. 노무현정부때 은사님이었던 김우식 전 비서실장님이 청와대에 들어와 일할 것을 권유했으나 그보다는 당시 정보화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것이 역사에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PC통신 하이텔에서 'HiTEL 길라잡이'라는 사용설명서를 써서 '길라잡이'라는 용어를 널리 알리고 테크니컬 라이터 도서출판 봄을 여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공동창업 멤버로 시작한 나우누리에서는 대표운영자로 동호회와 커뮤니티를 키웠고 인터넷 첫 상용화 서비스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iMBC에서는 방송콘텐츠의 유료화 사업을 맡는 미디어센터장으로 일했고 국회사무처에서는 편집장으로서 국회뉴스ON이라는 온라인 매체를 출범시키며 끊임없이 IT에서

새로운 변화를 배우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행정의 경험으로 이어진 과학기술

2016년 우연히 아는 후배의 소개로 성남시에서 정책보좌관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이재명 시장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치와는 거리를 두었지만 이재명의 일기를 읽고 이 사람이 가진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진정성에 감동해 이후 경기도에도 합류하게 됩니다. 이후 경기도 정보화정책관, 미래성장정책관으로 경기도에서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갔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쓰는 HWP를 오픈 포맷으로 바꾸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당시 유행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지를 예측하며, 세계 최초로 데이터배당도 실험하는 등 다양한 미래성장 정책들을 주도하였습니다. 학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오디션 방식으로 연구안을 내놓고 경쟁해 연구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이 얼마나 많은 난관을 풀어가야 하는지, 규제와 관습, 정치적 타협과 인내가 필요한 지를 체감했고, 그러면서도 기관 데이터 개방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미래정책을 알뜰하게 채워나갔습니다. 또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매일 하루 1건 이상의 과학기술 스토리를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소개하며 이재명 지사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이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경제이사로 경기도 미래산업의 지원과 진흥업무를 통해 산업정책을 경험했습니다.

AI시대를 이끄는 정책 혁신가

2024년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정당에는 가입하지 않았던 임문영은 이재명 당대표의 권유로 처음으로 민주당에 입당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디지털 특별위원장을 맡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래전환’이라는 과학기술인들의 모임을 만들어 AI전환과 에너지전환 시대의 지식리더십을 연구하던 그는 갑작스러운 계엄과 이후 빛의 혁명을 겪게 됩니다. 정권교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과거가 아닌 미래의제를 전면에 내세울 것’,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을 적극 제안하고, AI 3강이라는 핵심 정책을 후보공약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후 새정권이 출범하자, 하정우 AI수석을 추천했으며 자신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위원회 출범 3개월만에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완성하고 120여 명의 위원들과 아침 7시반부터 회의를 하는 등 이재명정부의 AI 3강을 위한 실천에 앞장서 왔습니다.

과학기술과 미래성장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어려서 광주와 호남의 차별을 보며 자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두 번의 탄핵, 불법계엄을 보며 정치는 민주주의라는 영원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고 국민의 삶에 대해 미래까지 책임지는 것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성장 동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와 산업역량을 가진 대한민국이 어떤 흔들림에도 굴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게 만드는 추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시대는 새로운 전환의 시대

AI시대는 모든 것이 바뀌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의 지방은 빠져나가는 썰물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로 인해 지방이 주도하는 새로운 밀물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미중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황금같은 기회를 반드시 살려내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지방AX는 모두가 잘사는 시대입니다. 부울경이 제조공정과 해양AX 등을 통해 성장하고 충청지역이 반도체 패키징과 과학, 바이오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하듯이 호남 역시 자율주행과 퍼지컬AI, 에너지 전환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광주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준비 중이고, 에너지전환의 중심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광주 광산울의 제조업이 스마트팩토리로 성장하고, 젊은이가 AI기술을 갖고 제조업의 유산을 이어받아 글로벌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의 대통합을 이룬 고향 광주에서 모든 것을 바쳐 일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문영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했지만 정치보다는 기술이 세상을 더 바꿀 것이라고 생각해 컴퓨터에 빠져 살았고, 박사학위도 기술경영공학으로 받았습니다. 성남시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세상을 진짜 바꾸려는 정치인도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이 되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재명정부에서 AI전략으로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일했습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에서 위원들과 함께 99개의 '행동계획'을 발표할 때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hwp 파일 하나 바꾸는 것도 벅찬 현실이었습니다. 수많은 규제와 싸워야 했고, 법을 바꿔야 했습니다. 현장을 점검하러 다니면서 기획과 실천 사이에, 중앙과 지방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당의 제안을 받아 이번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국회의원 자리를 위한 출마가 아니라, 우리 정치를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로 바꾸라는 특명으로 받아들입니다. 낡고 시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재건하고, 국가의 미래 비전을 세우라는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지방이 주도하는 AI 산업부흥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저를 키운 무등산, 광주로 돌아가 AI시대의 가장 앞선 도시, 에너지 전환으로 가장 앞선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부산에 출마 중인 하정우 후보와도 긴밀히 협력하며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호남과 영남, 2개의 AI 심장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AI 관련 입법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AI 3대 강국 실천에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투를 수도, 부족할 수도 있을지 걱정됩니다. 하지만, 국민께 듣고, 국민과 상의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로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